

시지정 문화재(유형·조각)

1965년 3월 17일 지정

관리자: 고와가마초 석불보존회

## 석조 자휴대덕 좌상

석조 자휴대덕 좌상은 도코지 절의 감실에 모셔져 있던 석상입니다. 가사를 걸친 높이 27cm의 승려 좌상으로, 석상 뒷면에 '자휴대덕(自休大德)'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휴'란 에도시대 전기의 협객인 후카미 주자에몬의 호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주자에몬의 아버지는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무장이었으며, 주자에몬 자신도 도도 가문을 섬기는 고위직 무사였지만, 스스로 낭인이 되어 협객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막부에 붙잡혀 오키 지방(현재의 시마네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사면되어 에도(현재의 도쿄)로 돌아와 삭발한 다음 스스로를 '자휴'라 칭하고 에도 고마고메카타마치(현재의 도쿄도 분쿄구 혼코마고메) 료코지 절 내에 암자를 짓고 살았습니다. 삭발 후 석공에게 조각하게 한 것이 이 석상이라고 하며, 주자에몬을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 그가 사망한 후에 이 석상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서 불상을 도코지 절에 모셨다고도 합니다. 주자에몬은 가부키 연극 "스케로쿠 유카리노 에도자쿠라"에 등장하는 "히게노 이큐"의 모델이라고 하며, 묘소는 혼코마고메의 료코지 절 내에 있습니다.

도코지 절은 천태종 사찰로 '루리코잔 쇼렌인'이라 불리며, 원래는 인바군 에이시무라 오구라 센조지(현재의 인자이시)의 말사였습니다. 경내에서 무로마치 시대의 판비와 명문이 있는 보협인탑의 기초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기원을 지닌 절로 추정됩니다.

2020년 1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